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문학적 표현”에 대하여

김철수 (전주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영화 <레미제라블>의 형식적 플롯과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장영창 선생님의 발표문은 감사하게 잘 읽고 들었습니다.

1845년부터 1862년까지 17 년간에 걸쳐 총 5권 48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뮤지컬 영화의 복잡한 플롯을 정리하는데 원용하신 “복잡계 이론”은 영화 자체 뿐 아니라 그 영화가 파급시킨 영향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복잡다단한 삶을 정리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복잡계 이론,” 혹은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로 분석한 결과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괴로워하는 장발장의 내적 갈등이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코믹하거나 낭만적인 복잡한 보조플롯들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잘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분석에 아울러서 선생님께서는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철학적 혹은 종교적 주제들이 작품 속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화 되는 과정에 대한 주제적 분석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산계급 남자의 추락과 기아에 의한 여성의 타락, 그리고 암흑에 의한 어린이의 위축’으로 형상화 된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회개를 통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장발장과 그의 사랑에 무너진 자베르의 냉정한 법치주의를 대조하고, 이 작품이 그러한 과정을 예술적으로 상징화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영화 작품에 대한 대단히 철저한 분석을 시도한 이처럼 공들인 발표문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춘계 학술대회 때 같은 제목의 소설 작품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다룬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학회 때 논찬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발표문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발표문에 대한 이해와 그를 기반으로 한 질문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복잡계 이론”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성분 간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동현상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현상들의 집합체”라는 전체 하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요인에 작용을 하고, 그것이 복합되어 차츰 큰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으로 자연과학과 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 “복잡계 이론”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절적 프로세스”라는 용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안정기,” “축매,” “혼돈기,” “창발기,” “한계점,” “전환기” 등의 순서나 혹은 구조로 이루어진 “복잡계 이론”이나 “단절적 프로세스”를 이용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기독교 사상이라는 주제의 표현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 분석이 갖고 있는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에 비해 주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은 그 밀도가 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락과 은혜와 구원으로 연결되는 기독교의 구속사나 “예정-소명-중생-믿음-칭의-회개-양자-성화-견인-영화”라는 구원의 서정 10 단계 등과 같은 구조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 세 번째는 제목에 대한 의구심 혹은 불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발표문의 제목인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문구는 본문의 내용과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영화의 구조를 “복잡계”의 이론이나 용어를 이용하여 분석해서, 작품 속에 기독교의 사상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추적했다는 의미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 오셨을 역작에 대하여 무지의 소치로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저의 부족한 논평과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